

사찰 앞마당서 펼쳐진 자비의 야단법석



봉은사 자원봉사자들이 전통문화마당에서 아이들이 만든 캐릭터 상품을 다리미로 전시하는 모습



염주를 조용히 꿰고 있는 아이. 이날 전통문화마당에는 가족단위 참석자가 많았다.



자비나눔 장터에서 친환경 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불자들의 모습

봉은사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장터 및 전통문화마당 현장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해 인근 사찰을 찾았는데, 뜻밖의 즐거움이네요.” - 김형숙씨(37)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전통문화도 즐기고 직거래 장터에서 쌀 물품을 사고 살 수 있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 김명숙씨(41)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불자들은 법회를 떠올릴 것이다. 법회와 함께 각종 지역의 특산물과 사찰에서 만든 상품을 구입하고, 또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진행되는 계층포교를 소개하고 지역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자비나눔장터와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봉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사찰로 유명하다. 시민들과의 접점이 넓은 만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과 시민들이 봉은사를 찾았다. 이들을 위해 봉은사가 준비한 것은 자비나눔장터, 네팔과 국내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장터

에는 봉은사 신도회가 직접 연결한 지리산 로컬푸드, 선재봉은 국수 등 5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법오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불자들부터, 봉은사가 진행하는 전통등전시회의 아름다운 등에 이끌려 사찰에 오게 된 시민들까지 모두들 다양한 먹거리를 접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연찮게 봉은사에 오게 됐는데, 요즘에는 먹거리를 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절에서 지역 농산물을 연결해서 파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삼성동에서 온 최영숙 씨는 인근 코엑스를 방문한 계기로 봉은사 자비나눔장터를 찾게 됐으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먹거리 부스 중 한쪽에 자리 잡은 인터넨탈 호텔 코너는 인기였다. 호텔에서 만든 빵은 금방동이 났다. 호텔 측의 기부받은 빵들로, 일반 제과점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코너 한쪽에는 작은 행복나눔기금 보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판매봉사에 나선 한 신도는 “법회보다 장터 등에서 보시함에 기부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눈을 돌려보니 먹거리 장터 곳곳에는 기금 보시함이 위치했다. 네팔돕기를 비롯해 봉은사가 진행하는 봉사현장을 시민들과 연결하는 곳이었다. 이날 장터의

부처님오신날 당일 1만명 모여 친환경 직거래 장터 높은 '인기'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사용 지화연꽃, 만다라 칠하기 등 체험 다양

모든 수익금도 신도회의 행복나눔기금으로 적립돼 봉은사가 수탁운영하는 다양한 복지기관과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됐다. 복지법인 봉은이 설립·운영 중인 달마학교 등 기관 외에도 광진희망세상, 도계비방망이, 진관, 꾸러기공방방, 도토리 학교, 포이동인연맺기 등 지역아동센터와 여성청소년수련관, 대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관까지 봉은사가 지원하는 곳은 다양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성금으로 학용품 구입하거나 학생들의 새 학기 준비에 사용하는 등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오후에 진행된 헌등행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달마학교 자용주스 부스의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



전통문화마당에서 관육에 동참하는 불자들



전통문화마당에서 부채 만들기예 열중하는 아이들.



봉은사 앞마당은 오후 늦게까지 행사 인파로 북적였다.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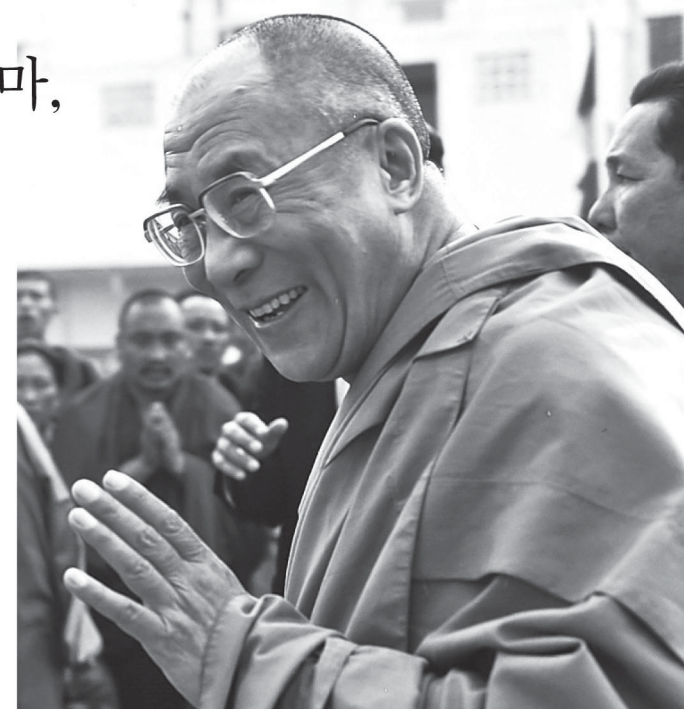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진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리/280쪽/15,000원